

꼬리를 무는 보일러 폭발사고

“법정교육 미필로 인한 안전불감증이 원인”

최근 들어 다시 보일러 안전사고가 늘어나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달 26일 오후 4시 40분쯤 부산 감전동 신발 자재공장인 나우산업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작업중이던 58살 김 모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43살 김 모씨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발자재 염색공장에서 코팅작업을 하다 보일러나 유전기가 폭발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지난 3월 29일에는 충북 청원군에 위치한 제지공장에서 보일러 폭발사고가 일어나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피해를 입었다.

이 공장은 밤새 불에 타 3억5천만원의 재산피해까지 입었다.

이 사고는 당일 오후 6시쯤 소각로 보일러가 폭발하면서 발생했고 350평의 공장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목적지에 따르면, 보일러 폭발로 길



▲사진은 부산 신발자재공장 폭발사고 현장 모습

이 2미터짜리 철제빔이 50미터를 날아가 철강공장 가건물을 덮쳤고 안에 있던 67살 송 모씨가 빔에 맞아 숨졌다.

또 폭발 당시 보일러실에 있던 53살 연 모씨도 숨진채 발견됐다.

폭발로 부서진 쇳덩어리 파편이 공장 주변 50미터 곳곳으로 날아가 직원 2명이 부상하고 공장 주변 주택과 상가 수십 채의 유리창이 파손되기도 했다.

청원군 내수읍에 사는 변상문씨는 “쿵하고 사람이 쓰러지고 TV가 날아가면서 유리창이 외장창 깨졌다”며 보일러

폭발사고의 위력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일러 과열이 폭발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일어난 염색공장 보일러사고 등으로 인한 사상자수는 98년 6명에서 2003년 2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98년 규제완화 조치 이후 오랫동안 검사대상기

기 조종자 법정교육이 없어진 결과물로 관리자들의 안전의식이 희미해진 결과이며,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법정교육이 제한교육이기에 최소 2년에 1회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보일러 사고가 일어난 곳은 무자격자에 의하여 운전이 되거나 작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정교육을 받지 않았기에 법정교육을 받음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협회관계자는 밝혔다. ☎

법정교육 신청자 급증 자격교육도 진행중

날씨가 따뜻해져 일반 상업건물의 난방 수요가 줄어들면서 협회에서 실시하는 검사대상기조종자 법정교육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법정교육 대상자는 검사대상기(보일러 및 압력용기)조종자로 선임 또는 채용되어 있는 자는 모두 금년 교육 일정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협회교육 담당자는 “각 지역별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 서울 중앙본부로 이동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며 만약 금년 교육일정에 미참석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자격교육은 협회지정 전국 7개학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협회 주관하에 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법정교육 수강신청서 10면
법정교육 대상자 법령 10면
자격교육 협회지정학원 9면



2005
Heating, Air-
Conditioning
Refrigeration & Fluid
Exhibition-Korea

The 7th HARFKO

제7회 한국 냉동·공조·위생·설비기자재전
第7回 韓國 冷凍·空調·衛生·設備기자재展

2005년 5월25일(수)~27일(금) 한국국제전시장(KINTEX)

장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한국국제전시장(KINTEX) 1층, 2홀

주 최 :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대한설비공학회

전시품목 : 압축기, 냉동기, 공조기, 에어컨(룸/패케이지/시스템), 히트펌프(EHP, GHP), 냉동냉장기기, 공기압축기, 위생기기, 설비기자재 등